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163-204  
<https://doi.org/10.29212/mh.2018..109.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기울어진 제2차 '세계'대전 통사

: 제러드 와인버그의 『2차세계대전사』 비평논문

제러드 L. 와인버그, 홍희범 역, 『2차세계대전사』, 과천: 길찾기, 2016

이상현\*

1. 들어가는 말
2. 위로부터의 2차대전사
3. 제2차 '세계'대전사
4. 홀로쿠스트의 위치 찾기
5. 불균형한 '세계'대전
6. 나가는 말

### 1. 들어가는 말

제2차 세계대전 연구자들에게 필독서로 꼽히는 제러드 와인버그의 *A World at Arms: Global History of World War II*(2005년

\* 공군사관학교 조교수

신장판)이 2016년 9월 『2차세계대전사』라는 제목을 달고 3권으로 나뉘어 번역되었다.<sup>1)</sup> 하지만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다시피 1978년부터 구상에 들어간 초판은 1994년에 발간되었고, 초판 출판 이후에 발간된 주요 연구 성과를 요약한 ‘신장판 서문’을 제외하면 신장판의 내용에 거의 변동이 없으므로 1990년대 영미권에 등장한 2차대전 통사가 늦게나마 국문으로 소개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sup>2)</sup> 원제의 ‘Global History’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일반적인 제목을 택한 역자와 출판사의 고민은 이해할 수 있다.<sup>3)</sup> 이런 제목의 선택은 거대한 전지구적 쟁투의 모든 지역을 (대체로 그러하지만) 공평하게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 번역되어 출판된 2차대전 통사들이 모두 900페이지가 넘어가는 단권으로 출판되는 바람에, 두 겹기로 악명 높은 와인버그의 책은 3권으로 분철되어 적어도 대중 독자의 입장에서서는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읽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그러나 여전히 통독하기 쉬운 서적은 아니다. “무솔리니는 무능한 각료와 당 간부들을 더욱 무능한 인물들로 수시로 교체”했다거나(2권 188쪽) 1944년 동부전선 독일의 “새로운 두 지휘관들은 곧 예전보다 더 많은 독일 병사들을 군법재판에 회부해 총

1) 제러드 L. 와인버그, 홍희범 역, 『2차세계대전사 1: 뒤집어진 세상』; 『2차세계대전사 2: 전세 역전』; 『2차세계대전사 3: 베를린에서 미주리 함상까지』, 과천: 길찾기, 2016. 이하 본문에 괄호안의 권수와 쪽수(혹은 장)로 표기.

2) Donald Detwiler, “A Flawed Masterpiece”, *H-Net Reviews* (Apr, 2006), <https://networks.h-net.org/node/35008/reviews/44594/detwiler-weinberg-world-arms-global-history-world-war-ii> (검색일: 2018.9.8.)

3) 존 키건, 류한수 역, 『2차 세계대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2007; 제프리 주크스 등 8인, 강민수 역, 『제2차 세계대전: 탐욕의 끝, 사상 최악의 전쟁』,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8; 앤터니 비버, 김규태·박리라 역, 『제2차 세계대전: 모든 것을 뺏아들인 블랙홀의 역사』, 과주: 글항아리, 2017.

4) 위의 책들은 각각 912쪽, 952쪽, 1288쪽 단권으로 번역되었다.

살했지만, 전임자들보다 소련군을 잘 막을 수는 없었다”(3권 15 쪽)는 등 촌철살인의 표현들이 간간히 등장하여 읽는 재미를 주는 것만으로는 독자들을 유인하기에 부족하다.<sup>5)</sup> 제러미 블랙(Jeremy Black)의 지적처럼 “요즘 학부생들이 읽기에 너무 두꺼운” 것도 사실이거니와, 와인버그는 전선의 격양된 병사들이나 역동적인 전투 장면 묘사를 통해 독자의 감정적 몰입을 일으키는 데 크게 관심이 없다.<sup>6)</sup> 이러한 문체는 이른바 전쟁의 ‘큰 그림’에 집중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다. 이 저서의 가장 주된 목적은 저자의 전공인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1차 사료까지 다수 참조하여, 폴란드에서 시작된 전쟁이 전세계로 확대되어 최종적으로 진화될 때까지 실타래처럼 정신없이 꼬여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엮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 덕분에 한 전투가 다음 전투나 다른 전장에, 심지어는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서 결국 상대방의 전략에 변화를 야기하는지는 자주 드러나는 반면에, 그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가령 단위부대가 전술적으로 어떻게 전투를 수행했는지는 거의 알 수가 없다. 심지어 각 권의 뒤편에 수록된 지도들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전반적인 전쟁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전선과 참전국들 및 대륙을 넘나드는 서술을 따라가기 쉽지 않은 불친절한 책이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물론 저자가 전쟁 전체의 그림을 보여준다

5) 데이비드 레이놀즈의 ‘유머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virtually no humor)’는 단호한 평가는 동의하기 어렵다. David Reynolds, “Over There, and There, and There”, *The New York Times* (Feb 20, 1994), p.7007013

6) 블랙은 와인버그의 책이 충분히 값어치를 하나 요즘 학부생들이 읽기에는 지나치게 두껍다는 농담으로 본인의 서평을 마무리했다.(*The Historical Review*, Vol.121, No.494(2006), p.1559); 키건은 전쟁의 경험에 대한 서술로 명성을 얻은 학자답게 그의 통사에 국가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주요 장군들, 심지어 전투 목격자들의 일기를 종종 발췌하여 현장감을 높이려고 시도했다.

는 사실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평자는 이러한 의도가 'Global History'라는 부제에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기에, 국문판 제목에 약간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적 관점을 유지하려는 저자의 서술이 히틀러의 외교정책과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통해 저서의 사학사적 위치를 짚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자의 접근 방식이 불가피하게 야기하는 불균형을 밝혀내어 잠재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와인버그는 1928년 하노버에서 태어나 히틀러의 집권과 반유대주의의 발흥을 직접 목도하며 1938년에 독일을 떠나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이민하는 데 성공한 독일계 유대인이다.<sup>7)</sup>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서 드물게 장교까지 진급한 이력을 바탕으로 1930년대 초반까지도 재무부에서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1934년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사망 이후에는 결국 직장을 떠나야했다. 와인버그와 형제도 이 무렵 학교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나기에 독일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1938년 11월 수정의 밤(Kristallnacht)에 본인이 등학교를 위해 매일같이 지나치던 길에 있던 유대교회당의 불탄 잔해를 목격한 것은 어린 나이의 와인버그에게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아버지의 경험과 1차대전의 인명피해에 대해 알고 있는 그에게도 신에게 “미친” 짓을 하는 행위는 납득이

7) 와인버그의 개인사와 관련한 내용은 미국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에서 2012년에 진행한 와인버그 본인과 인터뷰를 참조하라.

<https://collections.ushmm.org/search/catalog/irn74729> (검색일: 2018.9.8); 같은 페이지에서 스크립트를 확보할 수 있다. 이하 '인터뷰 스크립트'로 표기); 또한 가장 최근의 와인버그의 인터뷰도 참조하라. Daniel A. Gross, "A Historian who fled the Nazis and still wants us to read Hitler", *The New Yorker* (Dec 30, 2015)

<https://www.newyorker.com/books/page-turner/a-historian-who-fled-the-nazis-and-still-wants-us-to-read-hitler> (검색일: 2018.9.29.)

불가능했기 때문이다.<sup>8)</sup>

이러한 어린 시절을 고려하면 그가 2차대전과 히틀러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역사가가 된 그는 과거를 회고하면서도 결코 하노버가 반유대주의가 극성이었던 지역이라고 과장하거나 자신을 괴롭히던 독일 학생들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 등 학자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한다. 다만 저서에서는 그러한 인종주의 정책에 대한 무언의 동조나 무시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학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데 기여한 다수에게 냉소를 보내는 등 히틀러를 제외한 다른 당대인에게도 도덕적 단죄를 포기하지는 않는다.(2권 176, 183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버그의 어릴적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곧장 히틀러와 그의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와인버그가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하면서 처음 선택한 주제는 19세기 유럽의 외교사였다. 그의 첫 세미나 에세이가 지도 교수의 해석과 정면충돌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야 시기를 뒤로 미루어 20세기로 전공을 바꾸었고, 이것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sup>9)</sup>

## 2. 위로부터의 2차대전사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 과정의 와인버그를 지도한 한스 로트펠스(Hans Rothfels)는 19세기 유럽 외교사 전공자였으며, 1934년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에 의해서 쾰니히스베르크 대학

8) '인터뷰 스크립트', p.22.

9) '인터뷰 스크립트', pp.38-40.

교수 자리에서 밀려난 후 미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독일의 통일을 설명하며 민족주의보다는 유럽 질서의 안정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운 ‘한 명의 유럽 정치인’의 통제력이 진정한 변인이었다고 보는 전형적인 독일 역사주의자였다.<sup>10)</sup> 제자 와인버그는 『2차세계대전사』의 개정판이 나온 2005년 이후에 사회사, 문화사, 일상사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역사’가 기세를 올리는 동안 전쟁에서 자원이 분배되고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통적인 관점을 고수했다.<sup>11)</sup> 이런 입장을 따를 경우, 그가 연구하는 시기 독일의 외교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히틀러를 중심에 두어야 했다. 와인버그가 1958년에 사료 더미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른바 히틀러의 『두 번째 책』은 『나의 투쟁』마저 ‘대중에게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출판 금지를 당

10) 로트펠스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Jan Eckel, “Hans Rothfels: An Intellectual Biography in the Age of Extremes”,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42 No.3(Jul 2007), pp.421-446; Klemens Von Klemperer, “Hans Rothfels, 1891-1976”, *Central European History*, Vol.9 No.4(1976), pp.381-383; 로스펠스는 2차대전 중 출판되어 세계적 명성을 얻은 *Makers of Modern Strategy* 초판의 Clausewitz 장을 쓰기도 했다. Hans Rothfels, “Clausewitz” in Edward Earle, Gordon Craig and Felix Gilbert(eds.), *Makers of Modern Strategy: Military Thought from Machiavelli to Hitl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3, pp.93-116; 에켈에 따르면 로트펠스는 전쟁 중 독일의 반나치운동에 대해 연구하여 전통적인 독일 역사주의적 접근에서 잠시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저항운동에 대한 조명을 통해 비스마르크부터 이어지는 독일사의 연속성에서 나치 시대를 유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제자인 와인버그 또한 박사학위 취득 후 저항운동에 대해 연구하는 기회를 얻었지만 학문적 여정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큰 맥락에서 로트펠스와 유사하게 본인이 취한 입장을 반복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11) “Conversation with Gerhard Weinberg: What We Still Have to Learn about the War”, *World War II Magazine* (Aug 2018), <http://www.historynet.com/conversation-gerhard-weinberg-still-learn-war.htm> (검색일: 2018.8.25.); 기사는 동 잡지 2007년 7/8월 판에 처음 나왔으나, 이는 온라인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영미권에서 당장 빛을 보지는 못했다.<sup>12)</sup> 하지만 『두 번째 책』이 특히 총통의 영국과 미국에 대한 외교 정책에 대한 명료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료를 활용한 그의 외교사 연구는 탄력을 받아 1970년과 80년에 나누어 출간되었다. 전간기 독일의 외교정책을 다루는 『히틀러 독일의 외교 정책』이 그것이다. 이 글은 와인버그의 대표적인 성공작이 되었다.<sup>13)</sup>

70년대 후반에 구상에 들어간 『2차대전사』는 따라서 다음 단계로 히틀러의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2차대전 전쟁사 전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와인버그의 외교사가로서의 강점은 전시에 각국 지도자들이 모였던 각종 회담이나 주요 직위자들의 만남을 서술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물론 독일과 일본이라는 추축세력의 양대 강국 간에는 정상회담이 없었고, 주요 직위자들 간의 지속적인 회담도 거의 부재했기에 그러한 서술은 대체로 연합군, 특히 미국과 영국의 협조에 한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동맹국들 및 중립국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알력 다툼과 헝가리와 루마니아 간의 마찰 등 공동 전선 뒤편에서의 대립은 치밀하게 그려진다.(1권 220쪽) 그리고 그러한 만남에서 외교적으로 합의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

12) 『두 번째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내용은 황성모, “히틀러 생애와 저작들”, 아돌프 히틀러, 황성모 역, 『나의 투쟁』, 서울: 동서문화사, 2014, pp.77-124; 영역본은 2003년에야 출판되었다; Krista Smith(trans.), Gerhard Weinberg(edi.), *Hitler's Second Book: The Unpublished Sequel to Mein Kampf*, New York: Enigma Books, 2003.

13) Gerhard Weinberg, *The Foreign Policy of Hitler's Germany: Diplomatic Revolution in Europe, 1933-3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The Foreign Policy of Hitler's Germany: Starting World War II, 1937-193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와인버그는 종전 50주년을 맞이하여 전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자신의 글을 모아서 출판했다. *Hitler and World War II: Essays in Modern German and World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한 사항들이 실제 전장이라는 현실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영향을 받는지, 즉 군사전략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치밀하게 추적한다.

전략은 궁극적으로는 군지휘관을 통해 현실화되기에, 와인버그는 연합군은 많은 경우 그러한 회담에서 합의되고 독일의 경우 대체로 히틀러의 마음대로 결정되었던 고위 지휘관 선임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한다. 1942년 북아프리카 전선에서의 버나드 몽고메리(Bernard Montgomery) 영국 육군 장군이 “휘하 병력을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는 군대로 변모시킨” 유능한 지휘관이었지만(2권 60쪽), 1944년 이후 몽고메리의 이어지는 실수와 지나친 소심함, 미군 지휘관들과의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결국 영미 양국 최고지도자들은 유럽 대륙 전체의 육군을 그에게 맡기지 않았다.(3권 14장) 반면에 1943년 8월 퀘벡 회담에서 처칠과 루스벨트의 합의로 인도-버마 전선의 사령관으로 임명된 루이스 마운트배튼(Louis Mountbatten) 해군 제독과, 같은 시기 부임한 윌리엄 슬림(William Slim) 영국 육군 장군은 동맹국 지휘관 및 참모들과 업무 능력을 습득하여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선을 지켜내고 최종적으로는 승리에 기여한 유능한 지휘관으로 와인버그는 평가한다.(2권 11장, 3권 17장) 저자는 이를 통해 “고도로 기계화된 전쟁에서도 개인의 자질과 개성이 여전히 중요”함을 결론에서 강조하여, 극도로 복잡한 세계대전이었기에 “최고위급 인사들의 대인관계”와 “최소한 몇 명의 최고지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동맹국과 함께 일하고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의 차이가 연합군과 동맹국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한다.(3권 17장)

구조나 상황보다는 최고위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와인버그는 한 영웅적 개인이나 특정한 전투



만이 세계대전의 결과에 결정적이었다는 과장된 주장을 경계한다. 그는 독일군의 1941년 동부전선 공세의 날카로운 예봉이 꺾이기 시작하는 10월부터 이미 전세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판단하며 일본이 한창 팽창해나가던 1942년 상반기를 지나면 당대인이 인지하기는 어려웠지만 사후적 관점에서 볼 때 전세는 기울었다고 평가한다.<sup>14)</sup> 와인버그는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독일과 일본을 연합군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각각 저지하여 분리시켜놓음으로써 전쟁의 판도를 바꾼 기점이 1942년이라고 보는 입장이다.<sup>15)</sup>

이때 와인버그는 그 해에 벌어진 유명한 스탈린그라드·미드웨이·엘 알라메인 전투 각각이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하기보다는, 동부전선·태평양·북아프리카에서 그들 전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고, 각각의 전선에서 벌어진 일들이 다른 전선과 국가에 어떻게 '지구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광폭행보를 보이고 미국 해안에 독일 잠수함이 출몰하던 시점에도 영미는 '유럽 우선' 전략에 따라 미국제 전차 200대와 인도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항공부대를 북아

14) 이는 번역판이 3권으로 나뉘면서 제6장 '일본과 독일을 막아라 : 전세역전(1941.12~1942.11)'를 '전세역전'이라는 부제의 2권에 첫 번째 장으로 두어서 한국어판에서 더 잘 드러나게 되었다.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에서 원서에서 구분되어있지 않은 책(Book) 단위로 나누고 부제를 붙인 것은 괜찮은 시도이나, 원서 6장의 제목이 'Halting the Japanese, Halting the German Advance; Keeping them apart and Shifting the Balance: December 1941 to November 1942'인 점을 고려하면 두 추축국의 분리가 연합군 전략의 요점이었다는 점이 누락된 번역으로 보인다.

15) 당연히 학자마다 주장하는 전쟁의 전환점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담 투즈(Adam Tooze)는 독일의 집단 학살적 제국주의, 동부전선의 주력이었던 중부 집단군의 패배,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시작이 동시에 구체화되었던 1941년 후반이 '역사의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한다. Adam Tooze, *The Wages of Destruction: The Making & Breaking of The Nazi Economy*, London: Penguin, 2007[1st ed. Allen Lane, 2006], pp.416-512.

프리카 전선의 영국군에 파견하여 엘 알라메인의 승리를 일궈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선택으로 인해 항공부대를 지원받을 예정이었던 중국의 장제스(蔣中正) 정권이 느낀 서운함은 전쟁 후반까지 가시지 않아 미중관계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던 점을 설명해주는 식이다.(2권 6장)

무엇보다 그의 강점은 전투를 포함하는 전후 과정을 그려내는데 있다. 동쪽과 남쪽으로 팽창하기로 결심한 일본은 독일군과 합류가능한 유일한 지점이었던 중동과 인도양 지역에 제대로 된 군사력을 투사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독일은 북아프리카를 내줘 중동 곳곳에서 일어나는 친추축국 쿠데타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수에즈 운하와 이란을 통해 수많은 미국의 보급 물자가 지중해와 소련으로 흘러들어가서 전쟁 유지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단일 전투가 아닌 전쟁 전체의 큰 그림을 보았을 때, 1942년이 결정적이었다.(2권 6장, 9장) 또한 와인버그는 이 시점의 주요 전투들에서 연합군 승리의 가장 결정적 원인으로 흔히 손꼽히는 ‘엄청난 양적 우세’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어, 연합군의 물량 공세가 전쟁 내내 지속되었다는 ‘신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sup>16)</sup> 결국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능력이나 동맹과 같은 구조보다는 행위자라는 저자의 전통적인 주장이 재강조되는 셈이다. 그런 맥락에서 저자는 일본의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 五十六) 제독이 미해군과 엇

16) Gerhard L. Weinberg, "Some Myths of World War II",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75 (July 2011), pp.701-718. 그는 이 논문에서 『2차대전사』에서 본인이 통사에 반영한 몇 가지 주장을 정리하는데, 연합군의 양적 우세가 승리에 결정적이었다는 오해를 그 첫 번째로 손꼽았다. 물론 와인버그도 전쟁 후반기에는 양적 차이가 주효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외에 히틀러가 영국과의 화의에 관심이 있었다는 주장, 유대인 문제를 전쟁 전개와 분리해서 다루는 학자들의 잘못된 습성, 독일군 지휘관들이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는 환상 등을 잘못된 신화로 제시한다.

비슷한 전력을 잘못된 방식으로 운용하기도 했거니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령관직을 내던진다는 비타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눈앞의 전술적 이익에만 집착하여 진주만에서 미드웨이까지 일본 해군을 점차 재앙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속적으로 혹평한다.

### 3. 제2차 '세계'대전사

와인버그에게 2차대전에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행위자는 히틀러였다. 그는 중일전쟁이 2차대전의 시발점이라거나 1914년부터 1945년을 하나의 30년 전쟁으로 파악하려는 일각의 입장과 명확하게 대립한다.<sup>17)</sup> 1차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대전쟁을 겪은 강대국들은 전간기에 요동치는 국제정세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그 중심에 독일이 있었다. 독일의 상대적 잠재력은 주변국에 비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선전 활동으로 베르사유 조약과 배상 조치 등으로 인해 한없이 약해졌다고 홍보되었다. 와인버그에 따르면 “전쟁에 대한 개념이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상이한” 히틀러는 인종 집단들이 땅을 놓고 무한 경쟁을 펼친다는 투박한 사회적 다윈주의에 따라 “무능하고 유약한 유대인-불세비키들이 통치하는 슬라브인”이 살고 있는 러

17) 아시아 전역을 전쟁의 시작으로 보거나 최소한 유럽과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봐야한다는 최근의 주장은 다음을 참조하라. Rana Mitter, *Forgotten Ally: China's World War II, 1937-1945*, 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3; Haipeng Zhang, 'The two starting points of World War II: a reexamination from a global perspective', *Journal of Modern Chinese History*, Vol.10 No.1 (2016), pp.52-66; 30년 전쟁 테제의 대표격은 에른스트 놀테, 유은상 역, 『유럽의 시민전쟁 1917-1945: 민족사회주의와 불세비즘』, 서울: 대학춘, 1996.

시아 땅에서 독일의 미래를 찾고자 했다. 동쪽으로 향하기 전에 배후를 안정화하기 위해 체코슬로바키아와 프랑스를 정리해야 했고, 영국과의 전쟁은 미루고자 했으나 집권 초기 생각을 바꾸게 된다. 히틀러는 1차대전이 발칸 반도에서 “뜻하지 않게 벌어진 사건에 의해 잘못된 시기에 시작”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보고, “직접 선택한 시기에, 직접 기획한 사건을 계기로 전쟁을 시작하려 했다.”(1권 1장) 그에 따라 와인버그는 나치 독일이 국가 이성에 따른 외교 정책과 외부 위협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선택했다는 A.J.P. 테일러(Taylor)의 수정주의와 정면으로 대치한다.<sup>18)</sup> 테일러 논쟁 이전에 이미 독소전쟁이 소련에 대한 예방전쟁이었다는 주장을 사료를 통해 반박하는 데 성공한 와인버그는 2차대전 발발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무관하게 중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히틀러에게 책임을 묻는 명백한 ‘의도주의자(intentionalist)’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목표의 측면에서 와인버그는 히틀러가 유럽 대륙이 아니라 전 세계를 염두에 두었다고 주장하는 국제주의자(Globalist)이다.<sup>20)</sup>

18) A.J.P. 테일러, 유영수 역, 『제2차 세계대전의 기원』, 서울: 지식의 풍경, 2003.

19) Roderick Stackelberg, *The Routledge Companion to Nazi Germany*, New York: Routledge, 2007, pp.74, 93. 안드레아스 힐그루버(Andreas Hillgruber)는 와인버그의 반박으로 냉전시기에 환영받았던 예방전쟁 테제를 1954년에 철회한 이후 히틀러의 광신적인 인종주의와 생활권(Lebensraum)에 대한 욕심을 전쟁의 원인으로 제시하는데, 지나치게 히틀러를 해석에 중심에 놓아서 나치 지도부나 다른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독일 제국은 1871년 이후부터 중부 유럽을 슬라브민족과 볼셰비즘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최전선이었으며 소련의 팽창과 잔혹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나치즘을 제시하는 주장을 펼쳐 독일 사가논쟁의 중심에서 진보사가 진영으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구승희, “나치역사 평가를 둘러싼 독일학계의 논쟁”, 『역사비평』, No.20 (1993), pp.245-271 참조. 흥미롭게도 와인버그의 수백 권에 달하는 추천 도서 목록 중 유일하게 3번에 걸쳐 등장하는 저자가 바로 힐그루버인데, 반면에 반대측인 진보 사가는 라울 힐베르크(Raul Hillberg) 정도만 언급되어 와인버그의 불균형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20) 이언 커쇼(Ian Kershaw)는 유럽 대륙의 점령이나 지배권 확보가 히틀러의 목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진주만 공격 직후에 독일이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하는 과정이 후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비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다고 설명한다.(1권 290쪽) 여러 민족이 뒤섞인 데다 취약한 민주정부가 통치하는 미국은 히틀러가 보기에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할 수 없는 나라였고, 이러한 편견은 놀랍게도 전쟁 후반기까지도 지속되어 히틀러가 내리는 수많은 판단의 기저에는 뿌리깊은 인종주의적 편견이 있었다.(3권 14장) 오랫동안 미국과의 대결을 염두에 둔 히틀러는 대규모 해군이 완성되고 잠수함 전력이 영국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설피 싸움을 피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1권 2장) 그는 강력한 육군만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현실을 만회하고 세계로의 팽창을 이루기 위해서 대양해군과 대륙간 폭격기를 만들고자 예산과 자원을 배정했으나, 소련과의 전쟁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 자원을 육군으로 재배정하고 건함계획을 미루었다.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4년차에 접어든 중일전쟁이 고착상태에 접어들자 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소련과 휴전을 통해 북쪽을 안정화하고 남방으로 진출하고자 하였고, 이를 방해할 수 있는 미해군의 태평양 함대를 기습하기로 결심했다. 히틀러는 수년에 걸친 건함 과정보다 손쉽고 빠른 길이 이미 대양해군을 상당한 규모로 갖추고 있던 일본을 전쟁에 본격적으로 끌어들이 미

---

었다고 주장하는 대륙주의자(Continentalist)인데, 여러 지점에서 와인버그와 대척점에 있다. 전쟁 발발 전 작성된 독일의 대규모 함대 건설 계획은 미국이 아닌 영국의 해군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동시에 히틀러가 영국과의 회의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부전선 개전 이후 첫 겨울(1941~1942년)의 위기 이후에도 인도를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한 독일이 유럽을 장악하는 것을 용인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고 서술하여 진주만 공습이 진행된 이후에도 유럽 대륙에 한정된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이언 커쇼, 이희재 역, 『히틀러III: 몰락 1936~1945』, 서울: 교양인, 2010, pp.257, 340, 355, 562를 참조하라. 반면에 독일의 안락사 계획 등의 잔혹행위가 전쟁 맥락에서 중요한 요소였음을 강조하는 점은 와인버그와 궤를 같이 한다. 같은 책, p.335.

국과 맞서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에 것처럼 신속하게 선전 포고했던 것이다. 1940년 초·중반에 이루어진 이러한 독일과 일본의 결심이 향후 5년간의 전쟁의 방향을 결정했는데, 이로써 인종주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던 유럽 전쟁의 불길은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연결하며 국제화되었다.(1권 222쪽)

전쟁을 국제적인 규모로 만든 것은 동맹국이었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것처럼 거대한 전쟁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협력 능력은 연합국이 더욱 잘 갖추고 있었다. 1940년에 유럽대륙에서의 전쟁은 지중해로 확대되었는데, 여기서는 무솔리니의 허영심으로 발칸 반도와 북아프리카에 투입된 “지능과 계급이 반비례하는” 무능한 이탈리아군이 겪은 재앙을 독일군이 수습하면서 참전국들이 엷히게 되었다.(1권 248쪽) 이 과정에서 저자는 이러한 발칸 반도에 대한 독일의 개입과 히틀러가 흘려보낸 시간이 정작 중요한 독소전쟁의 개시 시점을 늦추어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이른 추위에 독일군이 발목을 잡혔다는 전후 독일 장군들의 회고록을 통해 널리 퍼진 또다른 ‘신화’를 꼬집는다.<sup>21)</sup> 와인버그는 독소전쟁의 개시는 날씨와 보급 문제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오히려 발칸 반도에 투입되었던 부대는 북아프리카의 에르빈 롬멜(Erwin Rommel) 장군에게 지원되지 못해서 지중해 전선을 전반적으로 약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와인버그는 그 결과 이집트를 사수한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 인도양으로 향하는 항로를 유지하여 미국과 접촉을 지속했다는 국제적 시각을 보여 줌과 동시에 히틀러에게 전쟁 중 일어난 수많은 군사적 오판까지도 뒤집어 씌우려는 독일 장군들의 위선을 비판한다.(2권 152쪽)

21) 에리히 폰 만슈타인, 정주용 역, 『잃어버린 승리: 만슈타인 회고록』, 고양: 좋은 땅, 2018. 만슈타인은 회고록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히틀러의 과도한 개입과 잘못된 선택에 패배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의 히틀러에 대한 입장은 11장 ‘국방군 최고사령관 히틀러’에서 잘 드러난다.

이 시점까지의 전쟁 전개에서 와인버그는 유럽 대륙을 모조리 내어준 상태에서 소련이 참전하기 전까지 홀로 독일과 맞선 영국의 폭격과 무역봉쇄, 그리고 이를 통한 독일 점령지에서의 반란 유도라는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진 전략을 중요하게 여겼다.<sup>22)</sup>(1권 176쪽) 이후에 참전했던 미국에게도 전쟁 수행에 대한 대체로 통일된 접근법을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독일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지 못하는 지중해에 전력을 투입하는 데 종종 반대하여 영국과 많은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늦게 참전하고 전투 경험이 미진한 미국이 일정 부분 양보하며 지중해를 중시하는 영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했기에 북아프리카에 먼저 상륙했고, 이후 이탈리아로 진군할 때까지 바다에서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폭격 작전을 지속하는 데 동의해서 저 유명한 D-Day는 1944년까지 미루어졌던 것이다.<sup>23)</sup>(2권 11장) 물론 소련과 영미 연합군 사이에는 현대적인 형태의 연합군 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구축된 영미처럼 원활한 협조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세 거두(巨頭)는 두 번이나 한자리에 모여 전쟁 진행 상황과 전후 세계 질서를 논의한 것과 대조적으로 독일과 일본은 정상적인 통신 채널 유지도 버거웠다.

전쟁 초기 독일이 유럽의 강국들을 뒤흔들어놓는 사이 일본이 구대륙 식민지인 동남아시아에 침투할 때만해도, 지구 반대편에 있던 두 동맹국은 각자의 전역에서 전투를 잘 치르는 것만으로도 전지구적 전쟁에서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22) 처칠은 본인의 자서전에서 유럽에 대한 결정적인 대규모 공격이 승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항상” 생각했다고 썼는데, 이는 자기변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윈스턴 처칠, 차병직 역, 『제2차 세계대전: 下』, 서울: 까치, 2016, p.748.

23) 그런 의미에서 유럽전역 영미연합군의 전략폭격 전역이 스탈린의 제2전선 개전 요구에 대한 정치적 반응으로서 가치가 있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리처드 오버리, “유럽 항공전, 1939~1945년”, 존 안드레아스 올슨 편, 강창부 역, 『항공전의 역사』, 편주: 한울아카데미, 2017, pp.64-93.

그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독일이 1942년 소련을 향한 두 번째 공세를 준비하면서 일본에게 만주 방향 및 인도양 공세를 요청했을 때 일본은 거절했다. 일본은 이미 산호해와 미드웨이에서의 대패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을 향한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애써 중립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소련과의 전쟁을 거부한 것이다.(2권 44쪽) 일본은 소련을 적대국으로 만들 경우 소련 기지에서 이륙하게 될 미국의 폭격기를 우려하여 전쟁 내내 독일의 소련 공격 요청을 거절했는데, 미국의 대소 지원물자 중 절반이 일본의 눈앞에서 소련 깃발을 단 선박에 의해 태평양을 건너갔기에 동부전선에서 사력을 다해서 싸우던 독일이 동맹국을 불편하게 생각했음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1권 329쪽) 하지만 독일이 1943년에 10여척의 잠수함 전단을 파견하여 말라야의 일본 해군기지를 기점으로 인도양에서 펼쳤던 ‘몬순’ 작전을 보면, 동맹국들도 연합작전이 가능했으며 결국 전지구적 협력은 의지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2권 86쪽)

이처럼 바다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장의 연결지이자 주요 물자 및 병력 수송의 통로였기에 최종적으로 이 전장에서 승리한 연합군은 전쟁 전체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당시에도 이후에도 종종 무시되고” 심지어 “스탈린도 이해하지 못하던” 길고 힘겨운 해전이 양측의 전략에 미친 거대한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와인버그는 1942년부터 1944년까지의 해전을 별도의 장으로 할당했다.(2권 64쪽) 독일의 잠수함과 이를 막는 연합군의 호송함대 간의 싸움은 전쟁 내내 계속되었으나 1942년 11월에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연합군의 선박 손실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는 1943년 5월 이후에 독일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남부 대서양으로 잠수함을 피신시키며 연합군의 판정승이 확실히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942년이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sup>24)</sup>(2권 83쪽)

세부 사항을 큰 그림 속에 위치시키는 와인버그의 장점은 바다에서의 전쟁에서도 드러난다. 연합군은 희망봉을 경유하는 항로보다 훨씬 짧은 지중해 해상 보급로를 완성하기 위해 북아프리카에 상륙했으나, 태평양 전선에 수송선을 내주는 바람에 상륙군이 부족하여 작전 초기에 장악하고자 했던 튀니지를 장악하는데 실패했다. 튀니지는 장기적으로 독일군이 1943년 중반까지 북아프리카에서 버틸 수 있는 교두보가 되었고 그에 따라 북서유럽을 향한 연합군의 직접적인 대규모 상륙작전은 1944년 중반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2권 81쪽) 또한 와인버그는 “역사가들이 종종 망각할 정도로 작은” 소련 해군 함대가 1942년 동부전선에 가해진 독일군의 대공세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활약을 묘사하여 해군과 육군의 합동성이 어떻게 간접적으로도 교차되는지를 보여준다.(2권 108쪽)

이렇게 전쟁의 큰 그림과 전략 전체를 보는 와인버그의 넓은 시야는 전쟁 후반기를 서술할 때까지 유지된다. 연합군의 전략폭격은 직접적인 효과로 기대되었던 엄청난 규모의 재산과 민간인 피해, 경제적 타격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이었던 독일의 잠수함 생산량 감소 및 방공 분야에 대한 자원 투자 강요가 효과적이었다고 여겨진다.<sup>25)</sup>(3권 119쪽) 또한 와인버그는 전쟁 후반 필요하

24) 와인버그는 이 때 연합군의 선박손실량이 감소하는 기점을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이 겨울이라 날씨의 영향으로 바다를 오가는 선단 자체가 감소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다른 학자들이 선박 건조량이 폭증하고 상선과 유보트 사이의 피해량이 엇비슷해지는 1943년 5월을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드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폴 케네디, 김규태·박리라 역, 『제국을 설계한 사람들: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꾼 영웅들의 이야기』, 파주: 21세기북스, 2015, pp.29-113. 케네디는 또한 암호해독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을 경계하는데, 80년대에 공개되기 시작한 암호해독과 관련된 사료를 적극 참조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와인버그도 그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25) 오버리는 전략폭격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의 생산 물자가 전투기 및 방공 지원에

다면 대규모 병력의 후퇴도 용인하던 히틀러가 쿠를란트라는 작은 땅에 기어코 병력을 남겨놓은 이유는 발트해를 손에 쥐고 있어야만 신형 유보트라는 최후의 수단을 운용할 승조원을 훈련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3권 65쪽) 저자는 히틀러가 동부전선 북쪽 끝의 바다에서 양성한 잠수함을 대서양으로 보내 보급로를 차단하고 아르덴에서 최후의 공세를 취해 서부전선의 서방 연합군을 격파한다는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전후 독일 장군의 회고록에서처럼 한 뼘의 땅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군사적 감각이 부재한 고집불통의 독재자로만 묘사되기에는 재평가될만한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주장한다.<sup>26)</sup> 이처럼 전쟁 말엽까지 히틀러의 전략 구상에 한자리를 차지했던 발트해는 거슬러 올라가면 1941년 독일의 최초 공세에서 획득하고자했던 목표 중 하나였고, 레닌그라드에서 붉은 군대의 끈질긴 저항은 전쟁 전체에서 자기 위치를 찾게 된다.<sup>27)</sup>(2권 108쪽)

전쟁 종료로 다가갈수록 와인버그의 눈은 전후의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주요 행위자와 선택을 향한다. 연합군을 가장 힘들게 만든 독일에 대한 처분과 폴란드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소련군의 주둔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저자는 아무리 훌륭한 명분과 이상도 물리력이라는 현실과 독립적으로 관철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3권

---

투입됨으로써 폭격기와 지상 전력에 투자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가장 중요한 전선인 동부 전선에서의 지상전에 큰 지장을 받은 전략의 왜곡효과를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 오버리, “유럽 항공전”, pp.64-93.

26) Weinberg, “Some Myths of World War II”, p.705; 만슈타인, 『잃어버린 승리』, p.306.

27) Martin Gilbert, *The Second World War: A Complete History*, London: Phoenix, 2009[1st edi. Widenfeld & Nicolson, 1989]. 길버트는 레닌그라드는 포위로 인해 심각한 기아와 희생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속해서 언급했지만 1944년 소련의 공세와 레닌그라드 봉쇄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깊게 분석하지는 못했다.

150쪽)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예견할 정도로 통찰력이 있고 신중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책의 전반에 걸쳐 그러하듯 높은 평가를 받는다. 영국의 처칠 총리는 그의 “19세기적” 식민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쇠락해가는 제국의 입장에서 미래의 적국이 될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의 팽창 범위를 제한하려는 장기적이고 전지구적인 관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3권 177-9쪽) 그리고 이러한 유럽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아시아의 전쟁은 수송선 문제부터 외교 교섭까지 많은 부분을 좌우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전쟁에 대한 국제적 관점을 놓치지 않는다.(3권 185쪽)

#### 4. 홀로코스트의 위치 찾기

와인버그가 세계대전의 전체 틀 안에서 독일의 외교와 전쟁 수행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면 독일과 그 점령지 내부에서는 단연 홀로코스트에 집중한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히틀러는 독일 민족을 위한 영토의 획득을 중요시했지만, 그 기저에는 인구 분포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인종주의가 근거하고 있었기에, 와인버그는 히틀러와 독일의 의도가 전쟁의 발발뿐만 아니라 홀로코스트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1권 227쪽) 따라서 저자는 나치당 집권 직후 유대인에 대한 박해 정책이 큰 인기를 끌었다는 점과 전쟁이 채 시작되기도 전부터 실시된 독일인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 환자와 노인들을 끔찍하게 살해했던 “체계적 살인”의 과정을 중요하게 묘사한다. 그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국내적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여 계획이 대부분 중단되기는 했으

나 그 과정에서 이미 10만 명 이상이 살해당하고 “관료적인 대량학살 전문가”들이 양산되어 “훗날 다른 분야에 활용”되었다. (1권 128-9쪽)

독일이 새로 점령한 지역에서 정신질환자와 노인, 무엇보다도 유대인을 “역사상 최초로 체계적으로 대량학살”하기 위한 계획은 동쪽을 향한 침공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수립되었고, 국방군에게는 특정 분류의 포로와 저항하는 민간인을, 히틀러의 지시로 창설된 특별살인부대(Einsatzgruppen)에게는 그 외에 말살해야 할 민간인을 제거하는 임무를 배분했다.(1권 229쪽) 이렇게 제거된 사람들이 살고 있던 토지로 독일계 주민을 이주시키려던 계획은 독소전쟁 초기에 입안되었고, 계획 수립과 거의 동시에 모든 유럽 국가에서 유대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독일 지도층 내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1권 310쪽) 그럼에도 책임자들은 예상보다 학살을 원하는 만큼 빠르고 능률적이게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인자들이 희생자들을 찾아가는 대신 희생자를 살인자에게 데려오는”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했고, 홀로코스트는 지역별 수용소에서 단체로 학살하는 방향으로 본궤도에 올랐다.(1권 344쪽)

홀로코스트를 통한 유대인 학살은 이런 의미에서 놀랍게도 독일인에게 “실용적인” 문제였으며, 이는 곧 나치의 장기인 “선전”에도 좋은 수단이 되었음을 의미했다.(2권 177쪽) 독일이 유럽의 동맹국들, 즉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과 외교 관계를 맺을 때 각 국가들이 유대인 문제 해결에 얼마나 협조하느냐는 히틀러에게 중요했다. 총통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게 협조했던 국가는 독일군이 전쟁 후반기에 직접 개입하여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을 수용소로 보내어 절멸시킴으로써 한 줌의 병력과 자원도 아쉬운 상황에서도 유대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했다.(2권 9장) 홀로코스트의 동인에 대한 설명에서 와인버그는 히틀러의 독일이 심각한 행정적 혼돈을 겪으며 모든 기관이 지분을 얻기 위해 무한 경쟁을 펼치면서 히틀러의 총애만을 기대하는 상황을 “권위주의적 무정부주의”라 소개하여, 책이 저술된 1980년대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나치즘 내부의 혼란스러운 속성에 공감한다.<sup>28)</sup> 하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전쟁 전체와 홀로코스트에 대해 독일, 특히 히틀러의 의도와 비중이 중요하다고 믿는 ‘의도주의자’였기에, 마르틴 브로샤트(Martin Broszat)나 한스 몸젠(Hans Mommsen)이 그러한 나치즘의 “난장판”이 히틀러의 국가 장악력을 약화시켰다고 기능주의적 입장에 반대하며, “결정권은 히틀러에게 집중되었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가장 무자비하고 단호한 인물들”이었다고 단언한다.<sup>29)</sup>(2권 180쪽)

이처럼 1980년대 학계의 흐름 속에 있었던 와인버그는 1980년 중반에 진흙탕과 같은 사가논쟁(Historikerstreit)으로 번지는 독일사 해석을 놓고 벌이는 다툼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나치와 2차대전사,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둘러싼 주요한 쟁점에서 그의 입장은 명확했고 이러한 논쟁을 당연히 지속적인

28) ‘권위주의적 무정부주의’라는 경구는 오스트리아의 친나치 언론인이었던 Walter Petwaidic이 전후에 출판한 회고록 제목이었으며 와인버그도 542번 각주를 통해 소개하였다.

29) 1970년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진 ‘권위주의적 무정부주의’나 ‘다중지배(Polycratic)’와 같은 개념을 둘러싼 양 학파의 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eremy Noakes, "Hitler and the Third Reich" in Dan Stone, *The Historiography of the Holocaus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pp.24-51. 이 글에서 Dieter Rebentisch에 따르면 ‘다중지배’ 개념은 우파 정치학자인 Gerhard Schultz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고 이후 기능주의 학파에서 받아들여졌으므로 김학이가 자신의 역서인 『히틀러국가』에서 브로샤트가 그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고 소개한 것은 오류이다; 김학이, 「옌긴이 해설: 지도자국가의 내부 구조와 나치 운동의 파괴적 역동성」, 마르틴 브로샤트, 김학이 역, 『히틀러국가: 나치 정치혁명의 이념과 현실』,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p.498.

로 추적하고 있었는데 이는 홀로코스트 역사학 계보에 한 획을 그은 크리스토퍼 브라우닝(Christopher Browning)의 『아주 평범한 사람들: 101예비경찰대와 유대인 학살』에 대한 그의 서평에서 잘 드러난다.<sup>30)</sup> 브라우닝은 이안 커쇼처럼 ‘의도주의자’와 ‘기능주의자’ 사이에서 중도의 입장을 취하는 일종의 ‘종합주의자’(Synthesis)로, 와인버그의 뒤를 이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았다. 와인버그는 그의 저작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그가 발견한 새로운 사료와 채택한 다각적 접근법이 홀로코스트 연구에 주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같은 사료로 단순한 해석을 내린 다니엘 골드하겐(Daniel Goldhagen)과 비교한다.<sup>31)</sup> 와인버그에 따르면, 몇몇 학자들이 홀로코스트를 ‘전쟁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과 반대로, 브라우닝은 이전까지의 홀로코스트 연구 성과와 동부전선의 전쟁 전개 과정의 맥락 속에 자신의 연구결과를 위치시키는데 성공했기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저작을 저술했으나, 여전히 폴란드에서 근무하던 일반적인 독일인들의 사무적인 학살 행위를 2차대전의 ‘더 광범위한 속성과 목적’ 아래에서 해석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와인버그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2차세계대전사』에서 모든 사건, 전투, 등장인물,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정과 만들어낸 정책을 서술했다. 와인버그는 15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역사상 가

30) 크리스토퍼 브라우닝, 이진모 역, 『아주 평범한 사람들: 101예비경찰대와 유대인 학살』, 서울: 책과함께, 2010; 와인버그의 서평은 Gerhard Weinberg, “Browning and the Big Picture” in Jeffrey M. Diefendorf(edi.), *Lessons and Legacies VI: New Currents in Holocaust Research*,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04, pp.252-8.

31) 골드하겐은 일부 부대의 기록을 근거로 계층과 무관하게 전 독일인이 반유대주의적 이상을 강하게 공유하고 있었다고 의도주의자들의 해석을 과도하게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골드하겐이 불러일으킨 논쟁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진모,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평범한’ 독일인들의 역할: 골드하겐 테제를 둘러싼 논쟁”, 『역사비평』 No.42 (1998), pp.249-267.

장 거대했던 전쟁을 히틀러의 인종주의를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과 전쟁의 수행을 중심에 놓고 하나의 화합물로 녹여내어 서술했다. 히틀러나 나치 독일, 혹은 홀로코스트를 전공한 수도 없이 많은 서구의 학자들이 각자의 주제를 둘러싼 논쟁에는 감정이 상할 정도로 치열하게 달려들었으나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쟁의 총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아우르는 대담한 시도는 쉽사리 찾아보기 힘들기에, 와인버그의 저작이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sup>32)</sup>

## 5. 불균형한 '세계'대전

와인버그의 홀로코스트 또한 2차 대전의 '더 광범위한 속성과 목적'에 들어맞게 서술되었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가치 있을 것이다. 분명 인종주의적 목적을 가진 히틀러와 전쟁 초기의 독일의 유대인 절멸 정책과 실질적인 수행 방식에 대한 기술은 거대한 퍼즐에 알맞은 조각이었다. 하지만 와인버그가 다른 글에서 지적했듯 홀로코스트는 단지 2차대전과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며 특히 전쟁의 군사적 진행상황이 홀로코스트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함에도, 전쟁 중반기 이후 홀로코스트에 대한 서술은 전쟁 전체의 흐름에 부드럽게 녹아들지 않는다.<sup>33)</sup> 1942년 중순 영국군의 이집트-중동에서 철수 계획에서 "현지의 유대인들이 독일군에게 학살당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문제

32) 홀로코스트의 연구사는 이미 많은 글에서 다루어졌다. Stackelberg, *The Routledge Companion to Nazi Germany*의 4장을 참조하라.

33) Weinberg, "Some Myths of World War II", p.703.

가 있다는 점은 글의 흐름에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 전체에서 수많은 지역과 경우에 연합군들이 대체로 군사적인 관점에서 철수를 선택했음을 고려하면 유대인 학살을 ‘막지 못한’ 연합군에게 지나치게 큰 도덕적 책임감을 씌우는 듯하다.(2권 51쪽) 또한 빠른 속도로 진격하던 소련군을 믿고(혹은 그들에게 속아서) 용감하게 바르샤바에서 봉기를 일으켰던 폴란드 저항조직(Armia Krajowa)에 대해서는, 독일에 의해 처참하게 제압당했던 “1년 전에 벌어진 바르샤바 게토의 봉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시도였다고 힐난하는데, 이 단순한 비교로 인해 유대인의 영웅적이지만 비극적인 저항은 재차 주목 받는 것과 반대로 폴란드인들의 저항은 전례에서 제대로 교훈도 얻지 못한 안타까운 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2권 233쪽)

사실 와인버그가 선택한 전형적인 위로부터의 역사에서는 학살당한 수백만의 유대인의 모습보다는 공개적으로 저항한 극소수만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무관심 속에 “눈과 귀를 막고” 재앙을 방관했던 대다수의 독일인과 동맹국 주민들에 대한 와인버그의 비판은 잇을 만하면 등장하지만, 이는 대다수의 방관자와 피해자 집단으로서의 유대인과, 그에 영웅적으로 저항했던 소수의 영웅이라는 이분법을 강화한다.(2권 183쪽) 거액의 뇌물과 별다른 탈출구가 없다는 점 때문에 끝까지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의 장군들과 동맹국의 기회주의적 친독파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치의 눈을 피해 유대인을 숨겨주고 유럽 밖으로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준 무명의 천사들과 대비된다.(2권 177쪽)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인간 군상을 이렇게 흑과 백으로 나누는 접근 방식은 복합적인 과거에 대한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재구성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과거를 통해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는 “추상적이고 알맹이 없는 역사교육”이 될



뿐이다. 와인버그는 일정 부분 이러한 도덕 교육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나 논쟁적인 접근 방식임에는 틀림없다.<sup>34)</sup>

독일 내부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이 나치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특히 1944년에 히틀러의 암살까지 시도한 극소수의 용기있는 영웅들과 생활의 터전을 폭격으로 상실하자 정권을 뒤흔들기보다는 거기에 의존하기로 선택한 대다수로 나타난다.(3권 99, 131쪽) 동시에 독일 외부에서는 1942년에 20만 이상의 규모로 불어난 파르티잔이 이례적으로 주목받으나 그 외에 나치 치하에서의 삶을 견뎌야했던 수백만의 대중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2권 130쪽) 와인버그 본인이 박사 학위 취득 후 50년대 후반부터 일정 기간 관련 연구를 수행했기에 동부 전선의 독일 측 후방에서 활약했던 파르티잔이 짧게라도 언급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럼에도 동유럽 전반에 대한 분석과 언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노먼 데이비스(Norman Davies)의 비판은 적절해 보인다.<sup>35)</sup>

사실 데이비스의 비판은 와인버그의 동부 전선 서술 전반에 걸쳐있다. 이는 와인버그가 다른 영미권 학자들보다 동부 전선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자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34) 안병직, “과거청산과 역사서술 - 독일과 한국의 비교”, 『역사학보』 제177권 (2003), pp.225-246. 그에 따르면 이러한 흑백논리는 90년대 이후 급부상하는 일상사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과 접근방식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일부는 독일에 점령당하고 일부는 괴뢰 정권에 의해 통치되었던 프랑스의 경우는 다음을 참조하라. 티머시 파슨스, 장문석 역, 『제국의 지배: 제국은 왜 항상 몰락하는가』, 서울: 까치, 2012, pp.433-519.

35) 와인버그는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공군의 요청으로 2차 대전에서 소련이 실시한 파르티잔 활동을 연구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교의 필 모즐리(Phil Moseley)가 이끄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여기서 라울 힐베르크(Raul Hillberg), 얼 짐케(Earl Ziemke) 등의 학자들과 연을 맺게 된다. ‘인터뷰 스크립트’ pp.45-8; 데이비스의 비판은 다음을 참조하라. Norman Davies, “The Misunderstood War”,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June 9, 1994), pp.20-23.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36)</sup>(1권 32-33쪽) 데이비스는 소련군과 독일군의 충돌만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 군대들이 오고가면서 황폐화시킨 드넓은 동유럽 지역이 거의 주목받지 못한다고 강조하며 와인버그가 전반적으로 동유럽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는 동유럽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아서, 전쟁 초반의 핀란드-소련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소련군이 어느 순간 승기를 잡아서 유리한 외교전을 펼치는 장면에서는 어떤 이유로, 어떻게 전세가 역전되었는지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저자는 장기인 협상 테이블 분석을 전개한다.(1권 137쪽) 이어서 폴란드에서 소련군이 자행한 악명 높은 카틴 숲 학살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이러한 서술은 앞서 얘기했던 비극적이지만 영웅적인 바르샤바 유대인들의 저항에 대한 서술과 대조된다. 홀로코스트 못지않게 심각했던 일본의 잔학행위도 상대적으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며, 중국에서의 잔학 행위는 “(중일)전쟁 초반에 집중되었기에 저서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 다루어지지도 않으며 전쟁 후반 필리핀에서 자행된 일본군의 대학살극은 병사들을 통제할 능력과 의지가 없었던 지휘관 탓으로 간단하게 돌려진다.(2권 204쪽, 3권 215쪽) 유행이 조금 지난 지구사의 용어를 빌리자면 와인버그의 2차 대전은 중심부(core)와 주변부(periphery)가 분명하게 구분되는데, 전투가 벌어지는 전선과 그 위에 있는 부대의 배비, 그것을 결정하는 정치가와 외교관들이 중심부에 놓여있고,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변부로 밀려난다. 여기서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연결은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데, 그 연결부 속에 부자연스럽게 유대인 문제들이 제 위치를 찾으려하는

36) James M. Diehl의 서평,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58 No.4(1994), pp.755-6 및 각주6번 Black의 서평을 참조하라.

바람에, 독일 외의 참전국들의 다양한 문제점들은 생략되며 최종적으로 유대인의 종말을 막아낸 연합군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자연스럽게 인정받는다.<sup>37)</sup>

이 책의 '주변부'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후방 전선에 대한 언급이다. 와인버그는 후방 전선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해서 서술하여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고 일부 서평가들이 그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많은 참전국들의 후방 전선을 병렬적이나 불균형하게 서술하고 무엇보다도 후방 전선이라는 복잡한 혼합체를 국민의 '사기'와 대체로 동일시하는 것은 일선 사령관들의 개인적인 관계까지 언급해주는 '전방 전선' 서술과 비교했을 때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2권 9장) 국가별로 나치의 범죄 행위를 대하는 다양한 국민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점과 지휘관과 병사 집단을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와인버그도 1980년대에 폭증하던 사회사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상사가 대두하는 1990년대 중후반을 지나고 출간한 개정판에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와인버그 본인의 해석에 큰 변화를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단언하는 서문은, 그가 사회사나 일상사적인 접근을 통해 대중이라는 무기명 집단의 해체를 시도하는 유행에도 불구하고 주요 행위자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통사에 충분히 어울린다.(1권 서문) 대다수 대중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향해 보여준 집단적 무관심이 그나마 그의 가장 진지한 사회사적 관심이며 반대 급부로 희생을 막거나 지연시켜준 일부 영웅들이 부각되면서 자연

37) 예를 들어 1939년부터 1941년까지 독일과 소련의 점령을 번갈아가며 받았던 폴란드 주민들의 참혹한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 Dieter Pohl, "War, Occupation and the Holocaust in Poland" in Stone, *The Historiography of the Holocaust*, pp.88-119; 연합국, 특히 미국에게 도덕적 우월성을 제공하는 주류 해석에 반기를 드는 입장은 다음을 참조하라. 자크 파월, 윤태준 역, 『좋은 전쟁이라는 신화: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의 추악한 진실』, 퍼주: 오월의봄, 2017.

스럽게 총통과 그 수족들은 절대악이 되고 희생자들은 절대선이 된다. 그리고 와인버그가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준 연합군들이 선한 행위자라고 결론에서 재차 힘주어 강조했다기에, 그 천사들의 후방 전선에서도 굴락과 같은 끔찍한 공간이 전쟁 내내, 심지어 전쟁 이후에도 존재했다는 점은 나치스와 그 협조자 및 방조자라는 흑백 전선의 검은 편에 서있는 자들에게 도덕적 단죄를 내리고자 하는 와인버그의 접근을 민망하게 만든다.<sup>38)</sup>

중심부와 주변부가 불균등하게 대접받는다라는 것이 중심부에 대한 서술이 균질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전투나 조직이 전쟁 전체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대한 논쟁은 인류가 수행했던 모든 전쟁과 마찬가지로 2차대전을 놓고도 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sup>39)</sup> 그리고 한 전투나 장군에 과도하게 스포트라이트를 주지 않기에 오히려 전쟁을 총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와인버그의 노력이 높이 평가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중요성이 있음에도 그 무게감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에피소드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전투는 단 한 페이지의 분량을 차지하며 이어지는 독일

38) 최근의 실증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련은 특정 부류의 포로를 무조건 살해하는 정책이 없었으며 전쟁 중 흔히 발생하는 포로 살해를 막으려는 상부 명령을 지속적으로 하달하는 등 최소한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는 했다. Mark Edele, "Take (No) Prisoners! The Red Army and German POWs, 1941-1943",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No.88 (June 2016), pp.342-379; 미국이 국내에서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근거였던 인종법은 나치에게도 시사점을 줄 정도로 정교하고 ‘현대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최근의 저작을 참고하라. 제임스 Q. 윌트먼, 노시내 역, 『히틀러의 모델, 미국: 미국의 인종법은 어떻게 나치에 영향을 미쳤는가』, 서울: 마티, 2018; 또한 미국도 전쟁 중에는 인종주의적 사고가 지배했다는 것을 상기해야한다. Nancy Brack and John R. Pavia, "Racism in Japanese and U.S. Wartime Propaganda", *The Historian* Vol.56 No.4(1994), pp.671-684 와 John Dower, *War without Mercy: Race and the Power in the Pacific War*,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6

39) Jeremy Black, *Rethinking World War Two: The Conflict and its Legacy*, London: Bloomsbury, 2015, p.103.

의 전략 폭격 시도도 거의 생략된다.(1권 183쪽) 이는 전반적으로 항공력이 전쟁 수행과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나 서술이 해양력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불균형하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분명 와인버그는 그 가치에 걸맞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소련 해군의 활약상 등을 조명하여 균형감을 가지려 노력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의 많은 연구가 전쟁 당시의 항공력과 그 기여에 대해 전략 폭격에 한정된 단편적인 접근 방식을 넘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음에도 와인버그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sup>40)</sup>

상술한 모든 불균형은 결국 태평양 전선에 대한 서술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와인버그 본인이 박해를 피해 달아난 미국의 대학에서 일본사를 수강했으며 전후 징집되어 일본에서 수년간 복무하여 일본 사회를 간접 체험한 경험은 분명 2차 대전을 바라보는 다른 유럽인들보다는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는 데 도움을

40) 와인버그의 참고도서 목록에 영국 공군 공간사를 지나치게 많이 참고한 Max Hastings의 *Bomber Command*(London: Pan Books, 1981)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어 처음으로 2차대전의 항공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려는 시도였던 Richard Overy의 *The Air War 1939-1945* (London: Potomac Books, 1980)가 빠진 것은 치명적인 대목이다. 마찬가지로 Williamson Murray의 중요한 저작인 *Luftwaffe* (Baltimore: Nautical & Aviation Publishing Co. of America, 1985)는 포함되어 있으나, 신장판이 나오는 2005년까지 새롭게 추가된 항공력과 관련된 주요 저서들은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다. 와인버그가 많이 의존하는 공간사의 내제적인 문제점과 2차 대전 항공력 관련 주요 저서들은 다음을 참조하라. 특히 냉전은 전략폭격에 집중하는 해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Peter Gray, *Air Warfare: History, Theory and Practice*, London: Bloomsbury, 2016, pp.17-36; 가장 최근의 저작으로는 다음의 두 저서를 반드시 참고해야한다. Richard Overy, *The Bombing War: Europe 1939-1945*, London: Allen Lane, 2013; Phillips Payson O'Brien, *How the War Was Won: Air-Sea Power and Allied Victory in World War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Overy의 책은 와인버그가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동유럽 전역에 대한 항공력의 영향을 서술하고 있으며, O'Brien은 지상에서의 전쟁이 결정적이었다는 현재의 주류 해석을 다시금 뒤집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주었다.<sup>41)</sup> 하지만 그의 관심이 원서 기준 100쪽이 넘어가는 참고도서 목록에 일본 도서를 추가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와인버그는 전쟁 발발 과정에서 세계대전에 대한 개입을 중일전쟁의 연장선으로 생각했던 일본 수뇌부의 입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얼마나 히틀러의 독일이 맞춰나가고 있던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으로서 기능했는지에 주목하는데, 중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졌던 노구교 사건을 독일의 입장에서만 서술하는 부분에서 저자의 불균형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sup>42)</sup>(1장 111쪽) 소련을 기점으로 미국 폭격기가 발진할 가능성에 노이로제와 같은 반응을 보였던 일본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일 간의 마찰은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반면에, 유럽 대륙만큼 넓은 전장에서 지속적인 전투에 휘말리고 결과적으로 참전국 중 두 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견뎌야 했던 중국이 일본군을 맞아 어떻게 싸웠는지는 알기 어렵다. B-17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미국의 필리핀 방어 계획을 허술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알려주었으나 전반적으로 부족한 전략폭격의 대한 서술은 그나마도 유럽 전역에서 영미 연합 항공력이 수행한 작전에 치우쳐있다. 일본 본토에 유일하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미국의 대규모 장거리 타격 능력은 상대적으로 와인버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결국 실시되지 않았던 대규모 상륙 계획인 올림픽과 코로나 작전에 대한 서술과 비교할 때 잘 드러난다.(1권 286쪽)

41) '인터뷰 스크립트', pp.36-8.

42) 이러한 와인버그의 독일중심 해석은 일본 저서를 통해 보완이 가능한데, 최근 국역된 저작으로 다음을 참조하라. 일본역사학회, 오일환·이연식·방일권 역, 『태평양전쟁사: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서울: 채륜, 2017) 다양한 층위에서 일본의 전쟁 참여를 분석하며 특히 분석 범위를 메이지 유신 이후까지 확장하여 구조적 요인에 대해 집중한다. 1950년대에 일본 좌파 사학자들에 의해 쓰인 책이라는 점에 유의한다면(그에 따라 구조적 요인이 강조된다) 일본을 중심으로 둔 국제적 접근법은 와인버그의 독일 중심적 접근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와인버그에 따르면 일본에 대규모 상륙 전을 펼치지 않고도 승리를 거두는 데 기여한 원자폭탄은 개발 과정이 2권에서, 사용과정이 3권에서 소개된다. 그는 이 신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둘러싸고 펼쳐진 첩보전을 흥미롭게 다루지만, 그토록 짧은 시간에 사실상 새로운 산업을 새로 일으키는 정도의 대규모 투자에 성공한 미국의 거대한 산업 능력과 그게 불가능했던 일본의 차이는 아주 소략하게 소개한다.<sup>43)</sup>(3권 239쪽) 이처럼 와인버그는 후방 전선을 대체로 사기의 측면에서 접근하기에 그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산업에 대한 서술은 부족하다. 자연히 일본의 전쟁 경제에 대한 설명은 취약한데, 특히 해양 수송로를 통해야만 침탈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석유를 포함한 주요 전략적 자원들을 본토로 가져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지정학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정확하게 짚으면서도 그 약점을 철저하게 공략해서 태평양 전쟁 승리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잠수함전 수행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는 저자가 대서양 해전에 별도의 장을 할당한 점과 극명하게 대조된다.<sup>44)</sup>(2권 94쪽) 초반에 언급한 버마 전선에서 활약한 마운트배튼과 슬림은 결과적으로 전선에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식견이 있는 지휘관으로 묘사되지

43) 오버리는 원자폭탄을 단순히 새롭게 등장한 강력한 군사무기라기보다는 전쟁 중에 과학과 기술을 대하는 양측의 상반된 태도 및 실현 가능한 신무기 연구에 투자를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결정과정의 차이에 따른 결과물로 본다. Overy, *The Air War*, pp.185-202.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가 B-29 개발 프로젝트보다 비용이 덜 들었다는 것이 종종 지적되지만, 프로젝트 자체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사적·과학적·공학적인 과제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리처드 R. 물러, “태평양 항공전, 1941~1945년”, 올슨 편, 『항공전의 역사』, pp.94-131.

44) 도조 히데키 당시 일본 총리는 맥아더의 섬 건너뛰기 전역, 빠른 함모 기동부대의 작전, 일본 상선에 대한 잠수함 전역을 전쟁 패배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물러, “태평양 항공전”, p.126에서 재인용.

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부하들을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으며, 결론에서 이러한 국제적 시각을 지닌 지휘관이 “단일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한 소련에게는 없었다고 명시하여 결국 와인버그의 주변부인 동부 전선과 아시아 전선에 대한 분석의 취약점이 드러난다.(3권 17장) 어쩌면 대작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점들은 어떤 저자가 2차대전 통사를 서술하려고 시도 한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구 대상의 넓이와 깊이가 한 명의 연구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기에 발생하는 내재적인 문제점일지도 모른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가 최근에 출판한 2차 대전사에 무려 81명의 학자를 동원한 것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인다.<sup>45)</sup>

## 6. 나가는 말

추천사에서도 강조하듯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엄청난 양의 참고도서 목록과 말미에 소개된 독서 가이드이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70년대와 80년대를 관통하는 2차 대전과 관련한 주류 해석과 그 시기에 새롭게 공개되기 시작했던 자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와인버그의 『2차대전사』는 이미 많이 누적된 관련 연구들을 광범위하게 참조하여 본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2차대전을 서술한 통사이다. 2차대전을 다루는 수많은 연구자들 중 극히 일부만 도전하는 이 과감한 시도

45)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1권(*Fighting the War*)은 Richard Bosworth와 Joseph Maiolo, 2권(*Politics and Ideology*)은 John Ferris와 Evan Mowdsley, 3권(*Total War: Economy, Society and Culture*)은 Michael Geyer와 Adam Tooze가 각각 편지를 담당하였다.



에서 그는 독일과 히틀러, 특히 그의 외교정책과 홀로코스트로 대표되는 인종정책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국제적인 규모로 확장시키는지 하나의 내러티브로 엮어낸다. 이를 통해 그는 히틀러에게 전쟁과 학살의 의도가 있었으며 그 목표는 국제적이었다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면서 그 주제를 2차대전사 전체에 녹여내어 전쟁과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당대의 학자들을 비판한다.

다만 복잡하고 거대한 전쟁에서 저자의 중심이 명확한 탓에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지점이 드러난다는 것은 저서의 제목에서 잘 드러나는 국제적 시각에 비추어보면 아쉽다. 와인버그는 일본보다 독일을, 소련군보다 영미연합군을, 국민보다 소수의 지도자를, 대중보다 영웅에 집중하는데, 외교사가로서 불가피한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신장판에서조차 수정을 시도하지 않는 부분은 치명적이다. 결과적으로 이 책의 초판이 나온 이래 20년이 지나서야 국문으로 번역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80년대에 그 모체를 두고 있는 저서가 가진 한계는 다른 역사나 최신 연구 성과로 독자가 별도로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불균형이 결코 앞서 강조한 저서의 가치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독자와 학계의 관심도와 비교했을 때 국내에 소개된 2차 대전 통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에서, 늦게나마 국내에 소개해준 역자에게 감사할 따름이며 특히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역사들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외교사가의 저서라는 점에서 유관 전공자나 관심 있는 국내 독자라면 숙독해야 할 독서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와인버그의 『2차대전사』는 역사 말미에 병렬적으로 안내한 2차대전 관련 도서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위치한 맥락을 알려주는 좋은 지도가 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8. 10. 2, 심사수정일 : 2018. 11. 11, 게재확정일 : 2018. 11. 19)

주제어 : 제2차 세계대전, 제러드 와인버그, 외교사, 지구사, 히틀러, 홀로코스트,  
의도주의자, 국제주의자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1-1. 국내도서

- 놀테, 에른스트, 유은상 역, 『유럽의 시민전쟁 1917-1945: 민족사회주의와 불세비즘』, 서울: 대학춘, 1996
- 만슈타인, 에리히 폰, 정주용 역, 『잃어버린 승리: 만슈타인 회고록』, 고양: 좋은땅, 2018
- 브라우닝, 크리스토퍼, 이진모 역, 『아주 평범한 사람들: 101예비경찰대대와 유대인 학살』, 서울: 책과함께, 2010
- 브로샤트, 마르틴, 김학이 역, 『히틀러국가: 나치 정치혁명의 이념과 현실』,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 비버, 앤터니, 김규태·박리라 역, 『제2차 세계대전: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역사』, 파주: 글항아리, 2017
- 올슨, 존 안드레아스 편, 강창부 역, 『항공전의 역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7
- 일본역사학연구회, 오일환·이연식·방일권 역, 『태평양전쟁사: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서울: 채륜, 2017
- 와인버그, 제러드 L., 홍희범 역, 『2차세계대전사 1: 뒤집어진 세상』, 과천: 길찾기, 2016
- 와인버그, 제러드 L., 홍희범 역, 『2차세계대전사 2: 전세 역전』, 과천: 길찾기, 2016
- 와인버그, 제러드 L., 홍희범 역, 『2차세계대전사 3: 베를린에서 미주리 함상까지』, 과천: 길찾기, 2016
- 위트먼, 제임스 Q., 노시내 역, 『히틀러의 모델, 미국: 미국의 인종법은 어떻게 나치에 영향을 미쳤는가』, 서울: 마티, 2018
- 주크스, 제프리 등 8인, 강민수 역, 『제2차 세계대전: 탐욕의 끝, 사상 최악의 전쟁』,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8
- 처칠, 윈스턴, 차병직 역, 『제2차 세계대전: 下』, 서울: 까치, 2016
- 커쇼, 이언, 이희재 역, 『히틀러II: 몰락 1936~1945』, 서울: 교양인, 2010
- 키건, 존, 류한수 역, 『2차 세계대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2007
- 케네디, 폴, 김규태·박리라 역, 『제국을 설계한 사람들: 제2차 세계대전의

- 흐름을 바꾼 영웅들의 이야기』, 파주: 21세기북스, 2015
- 테일러, A.J.P., 유영수 역, 『제2차 세계대전의 기원』, 서울: 지식의 풍경, 2003
- 파슨스, 티머시, 장문석 역, 『제국의 지배: 제국은 왜 항상 몰락하는가』, 서울: 까치, 2012
- 파월, 자크, 윤태준 역, 『좋은 전쟁이라는 신화: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의 추악한 진실』, 파주: 오월의봄, 2017
- 히틀러, 아돌프, 황성모 역, 『나의 투쟁』, 서울: 동서문화사, 2014

## 1-2. 외국도서

- Black, Jeremy, *Rethinking World War Two: The Conflict and its Legacy*, London: Bloomsbury, 2015
- Bosworth, Richard and Joseph Maiolo(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Vol.I: Fighting the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Diefendorf, Jeffrey M.(edi.), *Lessons and Legacies VI: New Currents in Holocaust Research*,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04
- Dower, John, *War without Mercy: Race and the Power in the Pacific War*,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6
- Earle, Edward, Gordon Craig and Felix Gilbert(eds.), *Makers of Modern Strategy: Military Thought from Machiavelli to Hitl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3
- Ferris, John, and Evan Mowdsley(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Vol.II: Politics and Id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Geyer, Michael and Adam Tooze(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Vol.III: Total War: Economy, Society and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Gilbert, Martin, *The Second World War: A Complete History*, London:

- Phoenix, 2009[1st edi. Widenfeld & Nicolson, 1989]
- Gray, Peter, *Air Warfare: History, Theory and Practice*, London: Bloomsbury, 2016
- Hastings, Max, *Bomber Command*, London: Pan Books, 1981
- Mitter, Rana, *Forgotten Ally: China's World War II, 1937-1945*, 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3
- Murray, Williamson, *Luftwaffe*, Baltimore: Nautical & Aviation Publishing Co. of America, 1985
- O'Brien, Phillips Payson, *How the War Was Won: Air-Sea Power and Allied Victory in World War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Overy, Richard, *The Air War 1939-1945*, London: Potomac Books, 1980
- Overy, Richard, *The Bombing War: Europe 1939-1945*, London: Allen Lane, 2013
- Stackelberg, Roderick, *The Routledge Companion to Nazi Germany*, New York: Routledge, 2007
- Stone, Dan, *The Historiography of the Holocaus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 Tooze, Adam, *The Wages of Destruction: The Making & Breaking of The Nazi Economy*, London: Penguin, 2007[1st edi. Allen Lane, 2006]
- Weinberg, Gerhard(edi.), Krista Smith(trans.), *Hitler's Second Book: The Unpublished Sequel to Mein Kampf*, New York: Enigma Books, 2003
- Weinberg, Gerhard, *The Foreign Policy of Hitler's Germany: Diplomatic Revolution in Europe, 1933-3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 Weinberg, Gerhard, *The Foreign Policy of Hitler's Germany: Starting World War II, 1937-193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Weinberg, Gerhard, *Hitler and World War II: Essays in Modern German*

and *World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Weinberg, Gerhard, *A World at Arms: A Global History of World War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2. 논문

안병직, “과거청산과 역사서술 - 독일과 한국의 비교”, 『역사학보』 제177권  
(2003): 225-246

UCI : <http://uci.or.kr/G704-000356,2003,177..007>

이진모, “나치의 유태인 학살과 ‘평범한’ 독일인들의 역할: 골드하겐 테제를 둘러싼  
논쟁”, 『역사비평』 No.42 (1998): 249-267

Brack, Nancy and John R. Pavia, “Racism in Japanese and U.S. Wartime  
Propaganda”, *The Historian* Vol.56 No.4 (1994): 671-684

Eckel, Jan, “Hans Rothfels: An Intellectual Biography in the Age of  
Extremes”,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42 No.3 (Jul  
2007): 421-446

DOI : <http://doi.org/10.1177/0022009407078335>

Edele, Mark, “Take (No) Prisoners! The Red Army and German POWs,  
1941-1943”,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No.88 (June 2016): 342-379

DOI : <https://doi.org/10.1086/686155>

Klemperer, Klemens Von, “Hans Rothfels, 1891-1976”, *Central European  
History*, Vol.9 No.4(1976): 381-383

DOI : <https://doi.org/10.1017/S0008938900018318>

Weinberg, Gerhard, "Some Myths of World War II",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75 (July 2011): 701-718

Zhang, Haipeng, "The two starting points of World War II: a  
reexamination from a global perspective", *Journal of Modern  
Chinese History*, Vol.10 No.1 (2016): 52-66

DOI : <https://doi.org/10.1080/17535654.2016.1168164>

### 3. 서평, 신문기사 및 온라인

Black, Jeremy, "A World at Arms: A Global History of World War II, by Gerhard Weinberg", *The Historical Review*, Vol.121, No.494(2006): 1559  
DOI : <https://doi.org/10.1093/ehr/cel361>

Davies, Norman, "The Misunderstood War",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June 9, 1994): 20-23

Diehl, James, "A World at Arms: A Global History of World War II, by Gerhard Weinberg",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58 No.4(1994): 755-6  
DOI: <http://doi.org/10.2307/2944292>

Reynolds, David, "Over There, and There, and There", *The New York Times* (Feb 20, 1994): 7007013

Detwiler, Donald, "A Flawed Masterpiece", *H-Net Reviews* (Apr, 2006),  
<https://networks.h-net.org/node/35008/reviews/44594/detwiler-weinberg-world-arms-global-history-world-war-ii>  
(검색일: 2018.9.8.)

Gross, Daniel A., "A Historian who fled the Nazis and still wants us to read Hitler", *The New Yorker* (Dec 30, 2015)  
<https://www.newyorker.com/books/page-turner/a-historian-who-fled-the-nazis-and-still-wants-us-to-read-hitler>  
(검색일: 2018.9.29.)

"Conversation with Gerhard Weinberg: What We Still Have to Learn about the War", *World War II Magazine* (Aug 2018),  
<http://www.historynet.com/conversation-gerhard-weinberg-still-learn-war.htm>  
(검색일: 2018.8.25.)

"Interview with Gerhard Weinberg"(인터뷰 스크립트),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https://collections.ushmm.org/search/catalog/irn74729>  
(검색일: 2018.9.8.)

<Abstract>

## An Unbalanced account of the Second 'World' War: A Critic on A World at Arms: A Global History of World War II

Lee, Sang-hyun

Gerhard Weinberg's *A World at Arms: A Global History of World War II* was translated into Korean in 2016. The book was a brave attempt to make a wholistic narrative of the Second World War focused on Hitler's racial foreign policy and the Holocaust. Weinberg wrote it throughout the 1980s and published the first edition in 1994. However, the author did not change his approach and analysis even until 2005 when the new edition was published; thus continues his theme of 1980's historical approaches and diplomatic history. This book is now finally introduced in Korea with almost 20 years old perspective.

The biggest strength of this work is that it illustrated a 'big picture' of the war with a focus on the contingency of battles, theatres, strategies and diplomacies, especially in terms of the global intention of Hitler. It distinguishes Weinberg from many other historians who have failed to provide the overall flow of the Second World War by over-emphasizing stories of 'Great Men' and famous battles. His classical perspective as a diplomatic historian allows his readers the great benefit to look at the war 'from the above'.

Despite his clear centre of gravity, however, Weinberg still has some drawbacks. The Hitler-centric approach inevitably makes the narrative to be Europe centric, especially Germany. Weinberg's



Holocaust is not well located in the general context of the world conflict, and the opposite scholars, who vigorously criticise the classic approach on the German history, are simply neglected. The new edition was published on 2005, yet cultural and social histories were almost not considered, while air power was not dealt with as seriously as naval power, and the Home Front was simplified as peoples' will. Therefore, although this book is one of the most recent publications on the general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it needs to be supported by other more recent studies.

Key words : the Second World War, Gerhard Weinberg, Diplomatic history, Global history, Hitler, the Holocaust, intentionalist, globalist

